

● 인성이 전투력이다

<4> 병 복무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만든
서울대 정창우 교수

육군은 다음 달부터 '2017년 병 복무 단계별 인성교육(두드림·Do Dream)'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두드림이란 병 복무 기간을 5단계로 나눠 '신병교육 간 인성 교육' '전입병 비전설계 교육' '자대복무 간 인성 함양 교육' '분대장 리더십 교육' '전역병 미래설계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육군은 지난해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발전시켜 올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올해 두드림 시행을 앞두고 육군리더십센터와 함께 두드림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울대 정창우(47·윤리교육과) 교수를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당부를 들어봤다.



정창우 서울대 교수는 “두드림은 군인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다”며 “한 사람의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인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에 주목 ‘두드림’의 꿈은 거기서 피어났죠

국내 인성교육 권위자, 육군 지원사격

“군에서의 생활은 전역 후 민간인으로서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복무 기간에 자신의 인성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역 후 겪을 시련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군 복무 기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군 생활 중 인성 가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 교수의 목소리에는 장병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던 25살의 늦은 나이에 입대한 육군25사단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던 경험 때문일까? 예비역 육군병장으로서 군 후배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싶었던 정 교수의 애정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도자료를 개발하는 바쁜 와중에도 육군의 협조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두드림으로 결실을 봤다.

사실, 육군의 인성교육은 정 교수의 합류로 큰 힘을 얻게 됐다. 국내 인성교육의 권위자인 그는 연구 책임자로 두드림 개발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큰 틀을 세우는 작업에도 든든한 조력자가 됐기 때문이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도구 개발에 앞서 군 인성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핵심·하위 덕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죠. 3개월간의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저를 포함해 60여 명의 공동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연구에 임했습니다.”



육군11사단 황룡대대 병사들이 교관의 지도 아래 육군리더십센터와 서울대 정창우 교수가 만든 ‘병 복무 단계별 인성교육’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받고 있다. 부대 제공

한 명의 건전한 시민 만들기엔 주력하며 군인에게 필요한 강한 인성 등 포함시켜

정 교수가 두드림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두 가지.

“우리 인생에도 여러 단계가 있듯이 군 복무도 단계별로 변화합니다. 두드림은 단계에 맞는 교육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드림은 군인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습니다. 단순히 군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의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인성을 기르는 데도 소홀하지 않은 것이죠. 이를 위해 과업 완수 지향적 인성,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품과 역량, 자기관리 역량, 불굴성 등 군인에게 필요한 강한 인성 외에 훌륭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인성까지 프로그램에 포함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교관의 역할’ 매우 중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교육효과 반감 장병들, 자기 자신과의 시간 많이 갖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정 교수는 교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관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할 것인가’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관이 용기·협력·존중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의 실생활은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활동이 들어있는데 교관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병사들에게 군 복무 기간을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두드림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틈날 때마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 야간경계 근무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삶의 방향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국가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거든요. 좋은 습관을 연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은 한 가닥 거미줄 같다’라는 스페인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 한 가닥은 가느다랗고 힘이 없지만, 계속 뭉쳐지면 튼튼한 밧줄처럼 변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인 만큼 복무 기간에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글=김가영/사진=양동욱 기자

■ 편집=유현애 기자

정창우 교수는?

▲1969년 경남 남해 출생 ▲서울대 윤리교육과·동 대학원 졸업, 미국 조지아대 대학원 철학박사 ▲서울대 인성교육연구센터장,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심의위원, 한국도덕 및 윤리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저서 『교사, 인성교육을 생각하다』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등 다수.